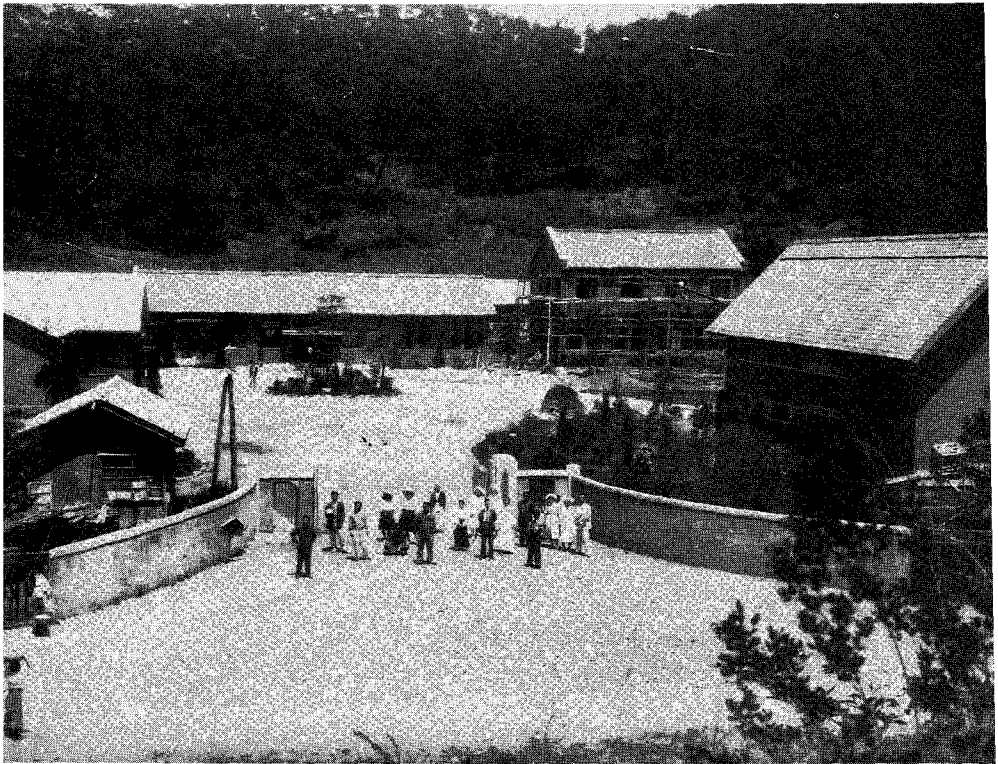


# 국립마산요양원(1)

—그 반세기의 천연한 발자취—

김 대 규 / 본 협회 부회장



▲ 1958년초 정문에서 바라본 국립마산결핵요양소 증축공사 중인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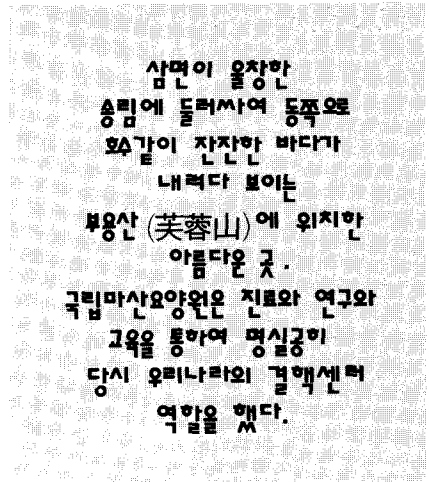
일제시대에 상이군인요양소로 출발하여 광복후 미군정하에서 최초의 결핵요양원으로 새롭게 문을 연 국립마산요양원 - 지금의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이어지는 반세기동안 특히 초기의 우리나라 결핵퇴치사업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그 찬연한 업적은 우리나라 결핵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 내용은 한국결핵사 편찬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중에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1946년 11월 6일 개원

우리나라의 결핵퇴치 사업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기관중의 하나인 국립마산요양원은 원래 1941년 일본 상이군인요양소로 개설되었다가 8·15 광복후 미군정하에서 기존건물은 보수하고 일부 건물은 신축하여, 1946년 6월 1일 우선 200병상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개원하였다.

연중 기후가 온화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천혜의 보양도시, 마산의 남서쪽 4킬로미터정도 떨어진 마산시 가포리 486번지(현, 마산시 합포구 가포동 486번지)에 위치한 이 요양원은 삼면이 울창한 송림에 둘러 싸이고 동쪽으로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부용산(芙蓉山) 일대의 부지 28,919평과 임야 201,000평의 국유지에 3개 병동과 본관, 강당, 주방, 기관실, 관사, 기숙사등 부속 건물을 갖추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후에 체육고등학교가 들어서면서 국유림의 일부가 학교용지로 바뀌고, 부지일



부는 지상물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불하되어 지금은 임야 126,967평 부지 27,799평으로 줄어들었다.)

8·15 광복 직후의 과도기에는 신마산(新馬山)의 유일한 의사였던 제길윤(諸吉允)박사가 마산시의사회 김형철 회장의 위임으로 접수와 운영책임을 맡아, 우선 일본인 河上소장으로 부터 현금 4만원과 장부, 물품, 환자 2명, 일본인 간호원 2명등을 인수하였다.

일제시 용도주임으로 있던 김동화(金東華)씨를 위시한 한국인 직원들은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질서를 유지하며 60%정도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광복으로 중단된 신축병동 재건을 결의하고 도난분산된 건축자재를 회수 보관하는 한편, 9월 하순 제길윤 박사와 김동화씨가 상경하여 미군정청 당국에 일본, 만주 등 외지로 부터 귀국하는 동포중 결핵환자

가 많을 것이므로 이미 60%진척된 공사를 완공하여 장차의 환자 수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양원의 재건 필요성을 누차 역설한 결과 이용설(李容堯) 보건후생부장의 협조와 노력으로 마침내 승인이 났다.

공사는 바로 착수되었고 다음해 1946년 4월 1일 세브란스 의전 내과교수 곽인성(郭仁星)박사가 초대원장으로 정식 부임함으로써 제길윤(諸吉允) 박사와 자치회의 과도기 체제는 끝났으며 1946년 6월 1일 마침내 광복후 최초의 국립결핵요양원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이 요양원 재건을 위하여 미군정청 공중위생담당 미군대위와 마산지구 미군의 테이너대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김동화 총무과장, 한태군(韓台均), 구달서(具達書), 이강연(李康演), 조경호(趙景鎬)씨형제등 한국인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이 컸다.

### 결핵센터로서의 기능과 R.K Smith박사의 공헌

개원 당시 의료진은 일본에서 결핵을 전공한 김임항(金壬恒) 의무과장과 세브란스 의전에서 온 이완영(李玩永), 변해원(邊海元), 그리고 김재호(金在湖)의 무관이 있었으며 그후 뒤이어 유광현(柳光鉉), 배수현(裴秀顯), 안재호(安在鎬), 이효근(李孝根), 안여하(安여夏), 유순자(柳順子) 제씨가 의무관으로 활동했다.

김임항(金壬恒) 의무과장 사임후에는 이완영(李玩永)박사와 유광현(柳光鉉)박

사가 순서대로 의무과장을 역임했으며, 당시의 치료법은 안정(安靜), 대기(大氣), 영양(營養)의 3대 자연요법과 허탈요법(虛脫療法)인 인공기흉술(人工氣胸術)이 주류를 이루었고 횡격막신경마비술(橫隔膜神經麻痺術)과 인공기복술(人工氣腹術)도 선택적으로 시행하였다.

특기할 것은 미군정청 의료고문관으로서 초창기부터 1948년까지 이 요양원에서 한국인 의사들에게 최신의 결핵학을 가르치고 직접 진료에도 헌신한 Roy K. Smith박사의 공적이다.

더욱이 태평양전쟁중의 서구의학과의 단절을 깨고 광복을 맞은 이땅에 최신의 미국 결핵학을 소개하고 실천한 Smith박사는 광복후 우리나라 결핵퇴치사업의 전개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국립마산요양원은 진료와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명실공히 당시 우리나라의 결핵센터로서 기능하였다.

Roy K. Smith(1885~1957, 한국명 沈宜道)박사는 1911년 미국복장로교의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여 세브란스병원 임시 직원으로 의료선교에 종사하다가 1920년에 대구로 가서 안동지방까지 순회진료를 다녔으며 1922년부터 12년간 황해도 재령에서 의료선교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1931년부터 34년까지 세브란스의 전 이사로도 활약했다.

1934년부터 40년까지 평양에서 활동했고 1940년에는 평안북도 선천의 미동병원장으로 부임했다가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말미암아 본국으로 송환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켄사스주 노튼시 결핵요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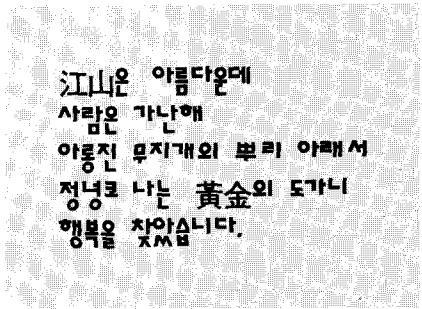
에서 결핵의 진료와 연구에 몰두했다.

태평양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미육군 1진과 함께 내한하여 미군정청 의료고문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946년 국립마산요양원이 개원하자 곧 그곳으로 부인 Laura McLane 여사와 함께 내려가 1948년까지 요양원 구내에 거주하면서 엑스선진단과 결핵균검사법, 간단한 기법의 횡격막신경마비술(橫隔膜神經麻痺術)과 인공기복(人工氣腹), 늑막박리술(肋膜剝離術)등 치료법을 지도하고 직접 시술하였다.

또한 1948년 1월부터 6월까지 교대로 전국의 각 병원 의사 58명에게 최신 엑스선확등 결핵진반에 대한 강습회를 열어 뜻있는 의사들의 재교육에도 힘썼는데 해당병원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대 1, 세브란스의대 4, 대구의대 3, 서울여의대 3, 서울적십자병원 2, 순화병원 2, 대구동산병원 2, 서울교통병원 2, 마산교통병원 1, 인천도립병원 2, 청주도립병원 2, 충주도립병원 2, 수원도립병원 2, 개성도립병원 2, 영동도립병원 1, 강릉도립병원 1, 영월도립병원 2, 김천도립병원 2, 안동도립병원 1, 공주도립병원 2, 대전도립병원 2, 부산도립병원 1, 춘천도립병원 2, 홍성도립병원 1, 원주도립병원 2, 서울후생병원 1, 서울시립병원 1, 전주도립병원 2, 군산도립병원 1, 경전병원 2, 이천도립병원 2

Smith박사는 “한국의 결핵”이란 제목으로 1946년 미국결핵의학회 6월호에 국립마산요양원에 관한 소개문을 쓴 말미에 시 한편을 실었다.



한국의 결핵

떠돌아 이땅에 표류한 것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있기에 들어주려 은거지요

이땅에서 한국인과 정들어  
이들의 시름을 내것으로 하여 살려 했드  
나  
무심할손 전쟁은 나를 떼어 보냈고

이제 다시 돌아와 戰禍에 부딪긴  
겨레의 결핵을 물리칠  
새로운 첫발을 디디웁니다.

江山은 아름다운데 사람은 가난해

아롱진 무지개의 뿌리 아래서  
정녕코 나는 黃金의 도가니 행복을 찾았  
습니다.

이 시에서 전쟁은 태평양전쟁을 말하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가 8·15 광복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기쁨과 한국민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결핵퇴치를 위한 염원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다. 卍